연세대학교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고 간결하게 밝혀라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논술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논술의 목적은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보기 위함이다. 절대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써야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정답에 근접한 것일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출제자도 채점자도 정답을 알리 만무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일은 논술에 있어서 정답(正答)은 없지만 절대 피해야 할 오답(誤答)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오답을 피하는가를 주로 이야기하기로 한다.

논술의 첫 번째 오답은 학생 스스로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논술이다. 어떤 답안지들은 자신의 의견이 아닌, 남의 의견으로만 가득 찬 경우도 있다. 특히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되는 문제가 출제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강하게 주장을 펼치기를 꺼린다.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적당히 서술하고, 결론에서는 양자를 적당히 버무린 절충안으로 끝나기 일쑤다. 이른바 양비론(兩非論) 혹은 양시론(兩是論)은 절대 피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하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혹시나 정답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학생들이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지도 않는 정답에 대한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분명히 방향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 오답의 유형은 누구나 다 쓰는 흔한 글을 쓰는 것이다. 요즘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논술에 대비한다고 들었다. 아마도 이런 사설논술학원들에서는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찍어서 모범답안들을 학습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채점을 하다 보면 최소한 10명 중 6~7명은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유사한 답안지를 제출한다.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범답안을 그대로 외운 학생들이다. 애석하기 짝이 없지만 그런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결국 학원의 모범답안은 절대 피해야 할 오답지인 것이다. 모범답안에 의지하지 말고, 젊은 학생답게 상상력 넘치고 패기 있는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학생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학생이 평소에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는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해 얼마나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가 등은 글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오답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한 논술이다. 서두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안락사(安樂死)라는 문제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읽는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술은 학생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보기 위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읽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따라오게 하여 궁극적으로 꼼짝없이 '내 말이 옳다'라는 말을 내뱉게 만드는 글, 그 이상의 논술은 없다.

마지막은 기본기 없이 개인기로만 가득 찬 논술이다. 즉 자신의 생각보다 수업시간이나 학원에서 듣고 외운 지식들만 나열된 답안지, 또는 화려한 수식어구로 군더더기가 덕지덕지 붙은 만연체 문장이 그러한 예다. 이들은 절대 피해야 할 오답 중의 오답이다. 논술은 학생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도 아니며, 백화점식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간결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야 한다.

채점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사고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또는 자신의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느낌도 받는다. 스스로 답안을 만들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몇 가지 선택지 가운데 고르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수능 객관식 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더욱 대학입학에 있어서 능동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는지도 모른다. 어디 입시뿐이랴. 기나긴 인생의 과정에서 당신들이 부닥칠 선택의 기로는 객관식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주관식이다. 그래서 더더욱 능동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TIP
유석춘 교수가 말하는 논술 오답 세가지 유형
1.첫번째 오답은 학생 스스로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답안이다.양비론과 양시론을 피하라.
2.두번째 오답은 모범답안 외워 상투적인 글을 쓴 답안이다.상상력 넘치고 패기있는 주장을 펼쳐라.
3.세번째 오답은 논리적 설득과정이 부족한 답안이다.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라.